

무등 정취 느끼며 벌이는 전통예술 큰 잔치

'무등올림 축제' 오늘 개막 28일까지 5개 주제 예술 향연 한복패션쇼·춤·국악경연 다채

올해도 무등산 자락의 맑은 울림이 빛과 울에 울려 퍼진다.

무등산의 아름다움과 포근함이 전통문화예술과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문화대잔치 치가 바로 그것.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무등올림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 무등올림 축제'가 윤림동 전통문화관과 무등산 자락 일대에서 3일부터 28일까지 펼쳐진다.

올해 4회째를 맞아 윤림동의 지역민,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전통문화대잔치는 무등의 정취를 느끼며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축제는 3일 오후 1시 30분 전통문화관 너털마당에서 한복패션쇼 '무등 색을 노래

하다'로 시작된다. 박현철(눈썹달주단) 디자이너가 선보이는 오색 찬란한 한복 작품과 무용단체 '나빌레라'의 전통무용 공연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다. 이번 패션쇼에는 관객이 직접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어 이날 오후 5시에는 타악그룹 '열쑤'와 박은비씨, 일본 홋카이도에서 온 '화심브라더스 워드 카즈미'가 각자의 민요·뱃노래 등을 부르며 호흡을 맞춘다. 이번 무대에서 일본 화심브라더스는 쓰가루 사미센(현악기) 등 다양한 일본 전통 악기의 선율을 들려줄 계획이다.

이어 올해 축제 주제인 '學(학), 戰(전), 休(휴), 場(장), 美(미)'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배움의 學'은 15 종류의 광주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체험으로 구성된다. 4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2~5시 무형문화재 명인들의 강연과 공연을 선보인다. 4일 가야금병창 너털마당에서 한복패션쇼 '무등 색을 노래

하다'로 시작된다. 박현철(눈썹달주단) 디자이너가 선보이는 오색 찬란한 한복 작품과 무용단체 '나빌레라'의 전통무용 공연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다. 이번 패션쇼에는 관객이 직접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어 이날 오후 5시에는 타악그룹 '열쑤'와 박은비씨, 일본 홋카이도에서 온 '화심브라더스 워드 카즈미'가 각자의 민요·뱃노래 등을 부르며 호흡을 맞춘다. 이번 무대에서 일본 화심브라더스는 쓰가루 사미센(현악기) 등 다양한 일본 전통 악기의 선율을 들려줄 계획이다.

이어 올해 축제 주제인 '學(학), 戰(전), 休(휴), 場(장), 美(미)'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배움의 學'은 15 종류의 광주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체험으로 구성된다. 4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2~5시 무형문화재 명인들의 강연과 공연을 선보인다. 4일 가야금병창 너털마당에서 한복패션쇼 '무등 색을 노래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고려사람 고려노래', 윤림동 아이들이 전통문화관에서 소풍을 즐기는 'M-DREAM의 꿈꾸고 나누는 소풍', 학운초교 학부모들이 지역 복지관 기금 마련을 위해 준비한 전통음식 거리 주막 '무등주막' 등이 전통문화관 서석당 및 마당에서 펼쳐진다.

오는 21일 진행되는 풍류마당 '잡이의 놀이'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시민체험프로그램인 '남도전통고추장담그기'를 통해서도 '전통의 美'를 느끼도록 했다.

축제가 끝나는 28일 오후 2시에는 불교영산재 공연으로 '마지막 울림'을 전한다. 광주시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영산재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되는 날 영가를 극악으로 천도하는 불교의식으로 광주전통불교영산회 승려들이 진행한다.

관람객이 축제 현장 곳곳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추첨해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문의 062-232-1599, 215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전거 타고 광주폴리 감상하세요

광주비엔날레 '훈이오빠와...' 11월 25일까지 운영

"자전거 타고 도심 곳곳 광주폴리를 감상해보세요."

(재)광주비엔날레가 광주폴리 일대를 자전거로 둘러보는 '훈이오빠와 함께 하는 광주폴리 투어(사진)'를 오는 11월 25일까지 매 주말(낮 12시~오후 6시) 운영한다.

광주폴리 자전거투어는 2가지 코스로 구성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하는 코스 A는 광주사랑방(미디어 셀), 열린공간, 기억의 현재화, 열린장벽, 99

칸, 유동성 조절, 투표를 거쳐 문화전당에서 끝난다.

코스 B는 서원문제등에서 승차해 광주사람들, 소통의 오두막, 아이러브스트리트, 뷰폴리(잠만경과 정자), 광주사랑방에서 내린다. 이용 요금은 1시간 기준 1만원이며 2명까지 탈 수 있다.

'광주폴리 프로젝트'는 '역사의 복원'을 주제로 한 광주폴리 I 11개, '인권과 공공공간' 주제 광주폴리 II 8개, '도시의 일상성-맛과 멋' 주제 광주폴리 III 11개 등 총 30개의 광주폴리를 광주 전역에 설치하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문의 062-608-426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민,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전통문화대잔치 '무등올림'이 오늘부터 28일까지 광주시 동구 윤림동 전통문화관과 무등산 자락 일대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열린 공연 모습.



지역민,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전통문화대잔치 '무등올림'이 오늘부터 28일까지 광주시 동구 윤림동 전통문화관과 무등산 자락 일대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열린 공연 모습.

마한 문화와 역사 배우고 남도 문화유산 답사 떠나요

국립나주박물관 '마한문화 아카데미' 11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영산강을 배경으로 드넓게 펼쳐진 나주 평야는 고대시대부터 지배세력의 중요한 터전이었다.

학계에서는 복암리 3호분은 5세기 나주에 있는 마한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고분으로 보고 있다. 5세기 후반 무렵, 원래 백제 세력이 이곳으로 왔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나주지역에 머물던 마한세력에 의해 제작된 것 같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마한 문화와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알리기 위한 시민 교양 강좌가 열린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박물관 관원회화와 공동으로 2018년 가을학기 '마한문화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오후 2~4시) 강당에서 진행된다. 전라도 1000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풍요의 땅 전

라-천년의 시간을 걷다'와 연계해 호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주제별 다양한 강좌가 마련돼 있다.

4일 첫 문을 여는 강좌는 박종환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장이 '전라도의 선사문화'를 주제로 전라도 지역의 고대 문화에 대해 다룬다. 11일에는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이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강의한다. 18일에는 이종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호남의 선비문화'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25일에는 '남도 답사 1번지, 강진'으로 답사가 예정돼 있다. 고려청자박물관, 다산초당, 백련사 일대 등을 둘러보며 강진과 남도의 문화를 살필 계획이다.

11월 1일과 8일에는 각각 최인선 순천대 사학과 교수가 '호남의 불교 문화', 박



국립나주박물관 교양 강좌 회원들이 지난해 경남 산청군 구황왕릉 앞에서 찍은 장면.

병선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가 '호남의 도자문화'를 이야기한다.

호남의 너른 들녘과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답사도 진행된다. 15일에는 전북의 김제 벽골제, 고창 고인돌박물관, 선운사 등을 방문한다.

마지막 22일에는 이태호 명지대 미술사

학과 교수가 '전라도 천년문화의 끝자락'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 교수는 호남 근현대 회화의 전통과 혁신에 대해 강의한다.

이날은 마지막 강의와 함께 '풍요의 땅 전라-천년의 시간을 걷다' 특별전 개막식도 치러질 예정이다. 문의 061-330-7822. /박성천 기자 skypark@

클래식·재즈·가곡·민요... 흥겨운 합창여행

광주문화재단 4일 국립합창단 초청 공연

국립합창단의 '흥겨운 합창여행'(사진)이 빛고을에서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윤의중 예술감독이 이끄는 '국립합창단'을 초청 '흥겨운 합창여행'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 '우수공연 초청기획사업' 일환인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네 번째 무대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서초교향악단과 협연으로 클래식과 재즈 음악은 물론 친숙한 한국가곡, 민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가곡 '내 맘의 강물', '뭇아이', '명태'를 시작으로 미국의 흑인영가 선

율을 작곡해 작곡된 마크 헤이즈 '분향으로 가리', 마크 베를러가 편곡한 '심판의 날'을 연주한다. 이어 전 세계에서 불리는 생일 축하 노래를 윤혜경이 편곡한 'Happy birthday to you Medley'와 '세노야 세노야', '뱃노래', '아리랑' 등을 들려준다.

1973년 전문합창단으로 창단된 국립합창단은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5회 정기연주회와 60여회 기획연주, 지방연주, 해외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입장권은 전석 5000원이며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계층은 사전 전화(062-670-7942) 예약을 통해 무료 관람할 수 있다. 7세 이상 관람.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CHANNEL A 미니시리즈

열두밤

사랑에 빠지기 충분한 시간

한승연 신현수
연출 정훈수 극본 황숙미

2018.10